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내 부처를 찾지 못하면 나를 몰라

철야정진법문 ③

이거 딱 알아버리면은 내라 하는 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라 말

여러분 견성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사실 귀찮을지도 모르죠.

눈에 성품 없다는 거 이거 과학적 아니에요? 귀에 성품 없다는 거, 지혜 없다는 거 과학적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빛을 알라 합니까?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죽어야 남의 부처를 찾습니다. 내 부처를 알아, 알면 남의 부처를 알아. 관세음보살도 알게 되고 문수보살도 알게 되고 석가모니불도 알게 되고 다 알아.

왜 그러냐면 여기 여러 가지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 이런 책을 쓰려면 못 쓸 거예요.

그러면 무슨 도리고? 내 부처를 찾을

“ 죽어도 내가 죽고 살아도 내가 사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별 도리가 없습니다 ”

죽어야 남의 부처를 찾습니다. 내 부처를 알아, 알면 남의 부처를 알아. 관세음보살도 알게 되고 문수보살도 알게 되고 석가모니불도 알게 되고 다 알아.

가 존경하지 남이 존경하나요? 부처님을 믿지 않는다 말이지, 내가 믿지 않는 거지 남이 믿지 않는가요?

그러하기 때문에 내 조계사에서 한 말이, ..불교니 이런 말이 있는데 전부 이 타적으로 쏘려버려. 부처님 있습니다.

어쨌든지 나를 모르려야 말 다 한 거 아니냐? 부처님을 알든 모르든 그건 별 문제로 하고 내 자신을 모르려야 그 이상 뭐라고 말할 거여?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는 왜 부처님을 존경하고 떠받드나

4-2. 귀경례

불이란 이를 설명하는 소리다. 항상 그 자체가 커다란 지혜의 광명을 발하면서 어디까지나 평등하고 아무 사된 것이 없이 순결하고 자유자재하고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아무데서도 영향을 받지 않는 행동 그 자체를 각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거나 지심귀명례(至心歸命禮)는 환원(還源)의 뜻에서 소귀일심(所歸一心)이라고 한 마음에 돌아가는 바이며, 지극한 마음으로 목숨을 돌이킨다는 것은 자기의 양심, 자기의 지성스런 생각에 돌아간다는 소리다.

지심귀명례라고 나서 삼계대사(三界大師), 사생자부(四生慈父), 대은교주(大恩教主)한 것은 우리가 돌아가는 바의 덕을 나타낸 말이다.

바로 그 자리가 삼계대사며 사생자부며 대은교주라는 것이다. 대은(大恩)이라고 하였으니 우리 인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는 뜻이 된다.

다덕(斷德)이란 일체의 번뇌(煩惱), 망상(妄想), 세속(俗世)의 인연(因緣)을 끊는 용단(勇斷)을 가지셨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효당 스님이 주석하던 다솔사. 민족정신의 산실이기도 했다.

하지 않는 용기를 지니시었던 분이요. 그러나 지덕(智德)이라면 그런 것은 철학자(哲學者)라도 가질 수 있고, 단덕(斷德)은 대장부(大丈夫)라면 갖출 수도 있는 일이다.

“ 부처님은 우리 인류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다 모든 번뇌·망상 온갖 죄악에 싸여 있는 우리들의 근본 스승이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

니불(釋迦牟尼佛)은 거금(距今) 2천5백년 전의 어른이며 또 그는 인도 사람으로서 우리와는 피도 다름없던 터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도 우리가 왜 떠받드는 것일까?

은혜란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없어서는 안된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절로 눈물이 나는 것은 그 은혜를 생각해서이다.

먼 구비 구비 뼈에 사무치고 심정이 몽글하게 울려 오는 것이 있으리라. 부모의 은혜를 생각할 때 반드시 감격이 따르게 마련이다.

부처님은 우리 인류를 가르쳐 주신 그 은혜가 크다. 어리석고, 못생기고, 철없는 짓을 하고, 모든 번뇌, 망상, 온갖 죄악에 싸여 있는 우리들의 근본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이시다.

석가(釋迦)는 족성(族姓)이고 성(姓)은 고오담마(Godumma) 모니(牟尼)는 성자(聖者)라는 말이다. 그리고 다시 불(佛)에는 이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색(色)이 무애(無碍)하여 거리낌이 없다는 것이 그 하나다.

둘째는 각행(覺行)이 자재공만(自在窮滿)하다는 것. 이것은 앞에 말한 바 있지만, 탄색용승(斷色用勝)이라고 하여 그 색의 용(用)이 형식적이거나 관념적(觀念的)인 데에 빠지지 않고 실사회(實社會)의 현실적인 그 공용(功用)이 매우 뛰어났다는 것.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주 원화 채정복)> 전 3권(민족사 권)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영산재의 범패소리 명상 힐링치유

영산재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인도의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모습을 재현한 불교의식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본 도량으로 오롯이 옮기고 영산회상의 제불보살님께 공양을 올리는 의식이다.

- 범패는 천년을 이어온 영혼의 소리로 우리나라 삼대 성악곡(판소리, 가곡, 범패)의 하나임.
■ 범패를 활용한 소리명상 힐링 치유는 인간의 감정과 내면의 세계를 다스리는 이 시대의 정신적 안식처로서의 가장 수승한 수행임.
■ 장 소 : 신촌 봉원사 경내
■ 일 시 : 매주 금요일 저녁 7:00~9:00
■ 수강대상 : 범패소리 명상을 수행하고자 하는 모든 분, 만병의 근원인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분.
■ 문 의 : ☎ 02)393-8027

- 지도 : 봉원사 법화정도회 처명(선광)스님
•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명상심리상담학과 석사과정
• 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졸업
• 동방대, 옥천범음대 졸업, 중앙승가대 강원 대교과 수료
• (사)한국산입카운슬러협회 1급 지도자(심리상담)
• 서울남부구치소 교정위원
•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

범패소리명상힐링연구소(소장: 처명)

갑오년 새해 첫 무료보시 단행

- 법당앰프 일절 설치주문시 ➔ 무선마이크 1셋트 추가 무료보시
● 법당전용스피커만 주문시 ➔ 고급 YD-675 마이크 무료보시

(무료 보시 기간 : 2014년 1월 29일 까지 주문분에 한함) 위 기간내 주문하실 경우 실제 설치는 2월 중에도 설치 해 드립니다!

Product showcase for audio equipment including amplifiers, speakers, and microphones with prices and features.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010-5335-2695

스님들께서 원하시던 꿈의 마이크 탄생!

모든 불자님들께서 주지스님께 올리는 최고의 보시품이 될 것입니다!!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어떤 오래된 앰프에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Specifications for the microphone: 지향성: 단일 지향성, 주파수특성: 50-14,000Hz, 대음강도: -35±1dB, 출력 임피던스: 500옴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발 송 : 입금 후 주소를 Fax나 문자로 주시면 3일 이내에 우체국 택배로 발송해 드립니다.

주문처 :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0-5335-2695 TEL 02)2697-9976 / FAX 02)2601-8284